

‘안전성수준’ 크게 향상 오·남용 말아야

‘인삼’ 해·비가림 재배로 병해충 발생 많고 발생 후 방제 어려워
안전사용기준 준수로 안전성 확보해야 수출·국내소비 가능할 것

다년생 반음지성 작물인 인삼은 서늘하고 건조한 기후를 좋아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가림 및 비가림 재배를 한다. 때문에 식물체가 연약하게 자라 병해충 발생이 많으며 일단 병해충이 발생하면 방제가 어렵다. 이로 인한 피해로 수년간 애써 키운 인삼의 수확량이 줄고 상품성이 떨어져 경제적 피해가 여간 작지 않다. 때문에 병해충 발생 예방을 위해 재배중에 주기적으로 농약을 살포 할 수밖에 없는 작물이기도 하다.

지속적인 교육·계도로 안전성 향상

그 결과 2002년도 소비자단체에서 시중에 유통중인 인삼(백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1989년도에 이미 잔류성문제로 품목이 폐지된 키토젠(Quintozene: PCNB)과 인삼에 사용농약으로 등록되지 않은 프로시미돈(Procymidone : 프로파)등이 다량

검출되면서 인삼의 안전성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농림부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 및 수출부진 등으로 침체 되어 있는 인삼산업을 활성화 시켜 고려인삼 중주국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원료 삼인 수삼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2003년부터 인삼경작 농가에 대한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재배중인 인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04년도 수확을 앞둔 4년, 5년, 6년근 인삼을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전국에서 총 211점을 채취하여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검출(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이상 검출)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잔류성 문제로 인삼은 물론 어떤 작물에도 사용해서는 안되는 농약임에도 불구하고 인

삼모잘록병 등에 약효가 좋다는 이유로 2003년도 까지만 해도 은밀하게 사용해오던 키토젠(PCNB)이 이번 조사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2003년도 인삼 안전성시험조사 결과 연구에 관계없이 부적합 검출이 제일 많았던 인삼 모잘록병 방제약제인 톨크로포스메칠(Tolclofos-methyl : 토로스)의 부적합 검출율도 크게 줄었다.

이는 그동안 농림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가 합동으로 인삼경작 농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재배중인 인삼을 수확 직전(10일경)에 채취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부적합한 인삼은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수확(채굴)시기를 연기하는 한편 또한 미등록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이상 검출된 농가에 대하여는 인삼산업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즉, 이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삼경작 농업인들의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의식이 바뀌면서 인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안전사용기준 지켜야 수출·국내소비 가능

그러나 아직도 미등록 농약인 프로시미돈(Procymidone : 프로파)과 엔도설판(Endosulfan : 지오릭스) 등이 검출되고 있으며 인삼에 등록농약인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 사이퍼메스린(Cypermethrin : 피레스), 피리메타닐(primethani)등의 부적합 검출율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인삼이 타 작물에 비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고, 인삼에 등록된 농약이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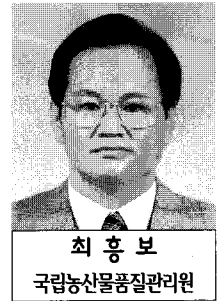
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아직도 일부 인삼경작 농업인들이 약효가 오래가고 가격이 싼 미등록 농약을 선호하는데다 수확 전 살포시기를 지키지 않고 고농도로 살포하는 등 농약을 오·남용하는데 주요 원인이 있다 할 수 있다.

인삼은 살포된 농약이 자연적으로 유실 또는 분해되는 양이 다른 작물에 비해 적어 작물체 및 토양에 잔류되는 양이 많다. 더욱이 인삼은 생장속도가 느려 일단 뿌리나 잎으로 흡수되어 근체에 잔류된 농약은 반감기간이 길기 때문에 농약의 안전사용이 더욱 요구되는 작물이다.

따라서 안전성이 확보된 인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용 농약사용은 물론 수확 전 살포시기와 표준 사용약량을 지키고, 병해충 발생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관행적 농약사용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웰빙 열풍으로 농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 등 건강식품의 소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인삼도 안전성확보 없이는 국내소비 및 수출 확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인삼 관련기관은 인삼 경작 농업인에 대한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저농약재배 등 친환경농법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끝으로 농약제조업체는 고추 등 유사 작물에 비해 턱없이 적은 적용농약의 등록을 확대하고 인삼 경작농업인들은 농약의 올바른 사용과 친환경농업기술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원료 삼(수삼)을 생산하여야 하겠다. Y



최 홍 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